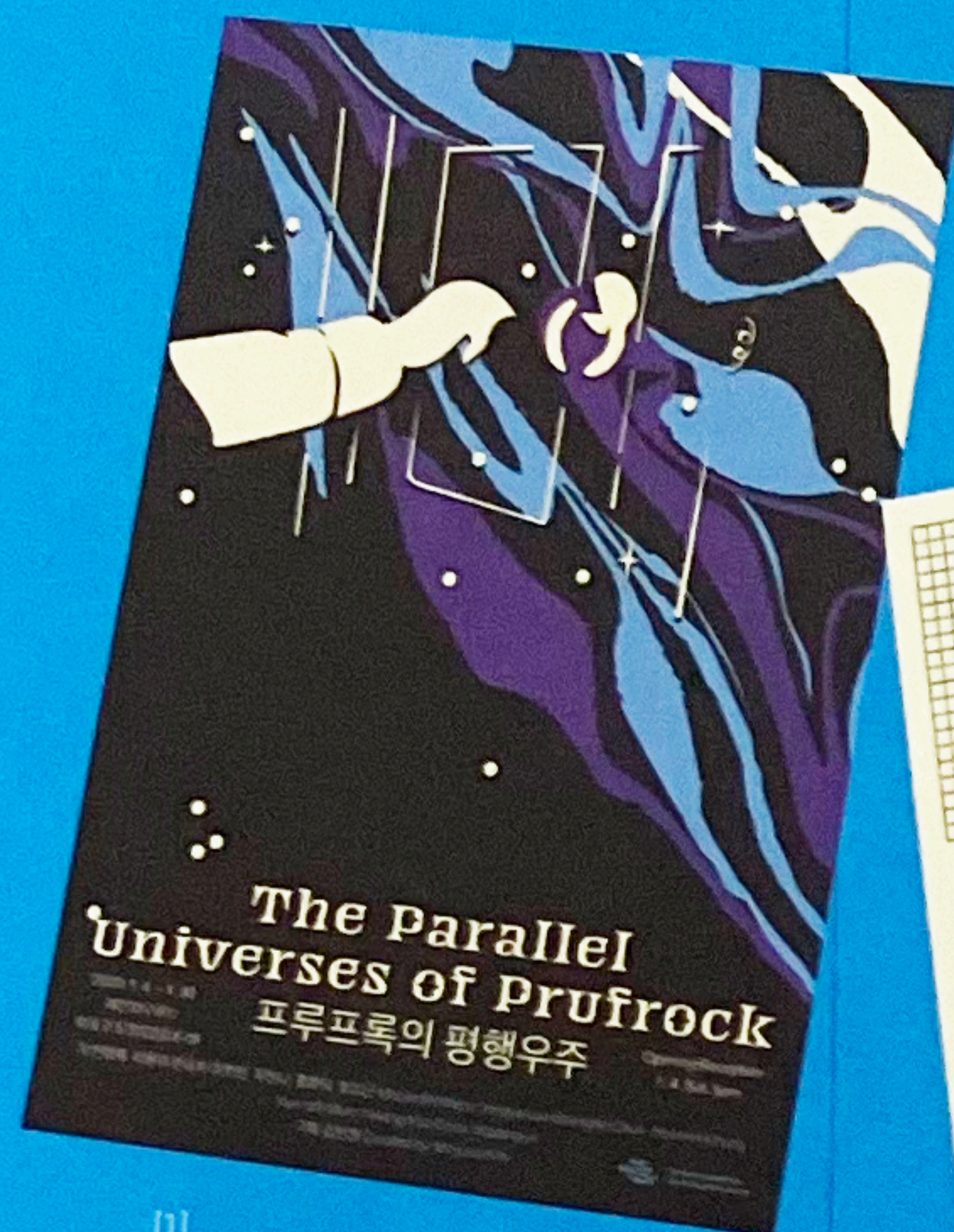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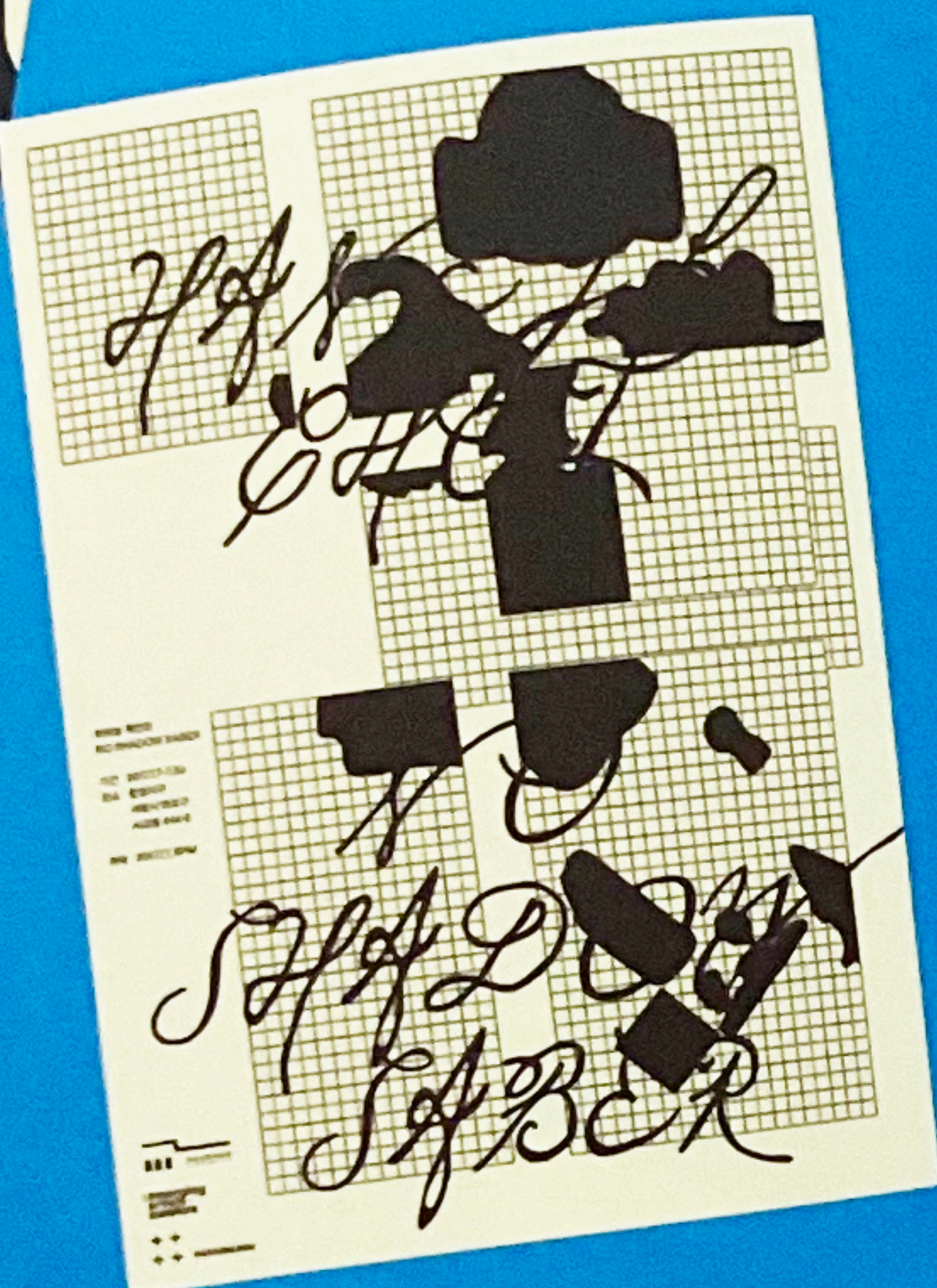


← 벡터 그래픽 * →



[1] «프루프록의 평행우주» (레인보우루브, 2020) 포스터 디자인 워크스



[2] «No Shadow Saber» (합정지구 2017) 포스터 디자인 산신



[3] «AFTERLIFE» (탈영역우정국, 2019) 포스터 디자인 산신

서간, 장소, 전시 포스터, 서울의 경우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디자인에서 패스를 이용해 그린 그림과 도형을 흔히 벡터 이미지라고 부른다. 벡터 이미지는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오픈타입 폰트와 마찬가지로 베지어 곡선*으로 형상을 만든다. 때문에 이미지와 폰트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디자이너는 전시의 내용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 생성한 이미지로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소통한다. 벡터 이미지로 제작된 포스터는 화면의 공간감보다는 도형의 모양과 색채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소통한다.

워크스가 디자인한 «프루프록의 평행우주» (2020) 포스터[1]는 벡터 그래픽으로 그린 일러스트로 전시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전시 내용은 T.S. 엘리엇의 시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와 심보선의 시 «아주 잠깐 빛나는 페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동일인이라는 평행우주 설정에서 출발한다. 평행 세계의 두 인물은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가리키는 듯한 손짓을 그려 나타낸다. 그리고 검정 바탕 위 사선으로 액체처럼 흐르는 추상적인 색면들을 배치하고 반짝거리는 점 요소를 더해 우주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작가 작업의 맥락을 포스터 화면으로 끌어오는 경우도 있다. 최하늘 개인전 «No Shadow Saber» (2017)[2]에서 작가는 자르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면을 조각 작업에 활용했다. 신신은 작가의 방법론을 격자 패턴의 사각 큐브를 평면으로 잘라 분절된 단면 이미지로 보여준다. «AFTERLIFE» (2019)[3]는 회화작가 5인전(김영재, 김혜수, 문경의, 이운상, 이준아)이다. 신신은 회화작가 5명의 필치를 추상적인 벡터 단면 그래픽으로 담아내어 전시의 풍경을 그려낸다. 이 두 가지 사례의 포스터에서 신신이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언어와 맥락을 그래픽디자이너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표현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방식에는 벡터 그래픽을 적극 활용했다.

그래픽 처리 기술의 한 가지로서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선분이나 곡선을 따라 전자 붓이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화면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 이는 선으로 된 그림의 처리에 편리하고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어진 영역의 내부를 채우는 그림 등은 색칠하기 어렵다. 벡터 그래픽은 주어진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선이나 형상을 배치하기 위해 일련의 명령어들이나 수학적 표현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임의의 형태의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만든 곡선 최초의 제어점(control point)인 시작점과 최후의 제어점인 끝점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내부 제어점의 이동에 의해 다양한 자유 곡선을 얻는 방법이다.